

영광군, 관광자원개발사업 착수보고회



영광군은 지난 11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영광군 관광자원 개발사업 컨설팅 및 구상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관광객의 연령대별, 지역별, 단체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 관광자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만이

랜드마크 개발 위한 컨설팅·구상용역 추진

불갑지구·백수해안도로·칠산타워 등 활용

가진 특색을 파악해 스토리텔링, 발전전략, 프로그램 확대 등 장·단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군의 대표 관광지인 불갑사지구 관광지, 백수해안도로 등과 더불어 작년 말 칠산대교 개통으로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칠산타워 주변을 포함하여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영광

의 랜드마크 개발로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구상용역은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둔 만큼 차별화된 관광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군에서는 지속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이색적인 회화전시 특별전 '천사의 바다정원에 핀 만드라미展'

1004섬 신안군은 섬 하나하나에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 채색하고 문화예술을 입히는 '1도(島) 1뮤지움'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1004섬 신안군은 만드라미꽃 축제와 함께 이색적인 회화전시 '천사의 바다정원에 핀 만드라미展'을 함께 펼친다.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열정'의 꽃말을 가진 만드라미 정원 속 증도면 (구)병풍분교장에서 전시를 개최한다.

병풍분교장 전시에 앞서 교통이 편리한 압해도 저녁노을미술관에서 8월 12부터 9월 6일까지 만드라미 작품 40여점을 먼저 관람할 수 있다. 8월 12일 압해도 전시회 개막식에는 참여작가와 병풍도 주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만드라미는 꽃말처럼 '열정'과 화려함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애뜻하고 처절함마저 느껴지는 신비로운 꽃이다. 이번 전시는 만드라미꽃을 국내의 유명 작가 10명의 각기 다른 시선으로 다루었다.

만드라미꽃을 10여년 이상 그

려운 김숙, 김준준, 박동신 작가와 '잔인한 아름다움'을 주제로 만드라미를 담은 김지원 작가가 참여하였고, 월드투어 프로젝트에 1,300회 이상 참여한 안윤모 작가, 제4회 박수근미술상 수상작가 박미화 작가, 안혜경, 우용민, 김우성 및 해학의 작가 최석운은 만드라미 신작을 출품하였다.

특히 우용민 작가는 병풍도의 풍광과 기점 소약도 12사도를 담았으며, 한 곳에서 보기 어려운 작가들의 100호가 넘는 대작부터 다양한 소품까지 감상할 수 있다.

저녁노을미술관은 신안군 공립미술관으로 신안의 멋진 풍경을 담은 마이클케나사전과 우암 박용규 상설전을 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작은 섬 병풍도에서 "형형색색 물든 만드라미도 보고 병풍분교장 폐교 공간에 전시된 만드라미 회화 관람과 함께 어릴 적 추억도 생각하시고, 언택트 관광지 신안의 핫플레이스인 기점·소약도 12사도 순례자의길은 한번쯤은 꼭 걸어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어린이도서관, 하반기 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목포어린이도서관(관장 김용민)이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4주간 '2020 하반기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유아, 성인을 위해 모두 12과목 20강좌가 운영된다.

초등 강좌에는 ▶다중지능수학 ▶논리비독 ▶종이접기 ▶건축교실 등이, 유아 대상 강좌에는 ▶그림책 미술 ▶어린이동화구연 ▶4D장의 융합과학교실(유아) 등이 설정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수리력과 창의력을 높여주는 ▶창의지필과를 강좌가 새로 개설됐고, 코딩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게임으로 배우는 스크래치 코딩 강좌도 개설됐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그림책 육아 ▶캘리그래피 ▶프랑스시수 등이 있다.

어린이도서관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고, 매 수업마다 강의실 소독 및 발열체크를 진행하며, 강의마다 수강 인원을 대폭 축소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할 계획이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그와 별도로 특정 강좌의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수강신청은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무화과 총채벌레 병과수매 시작

한달간 상호농협서 1kg당 1000원 총 250톤 수매

영암군은 2020년 영암 무화과 총채벌레 병과수매를 시작하여 8월 11일부터 한달간 상호농협 DSC(상호읍 망산리)에서 무화과 병과 1kg당 1,000원으로 총 250톤을 수매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암 무화과 총채벌레 병과수매 지원사업은 8~9월

중 집중적으로 생산된 무화과 병과를 시장에서 격리시켜 고품질 무화과를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영암 무화과의 신뢰회복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올해에는 무화과 재배 경작 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면적대비 병과수매를 많이 내는 것을 막고,

병과수매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농가별 쿠폰제를 적용하여 수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총채벌레 수매 쿠폰제 운영 첫해로 총채벌레를 입은 모든 농가가 참여함으로써 시장에 병과 무화과가 섞여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고, 병과수매 쿠폰제 시행초기 문제점이 발생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계속해서 병과수매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암군, 청소년참여기구 리더십 역량강화 운영

청소년 아이디어 발굴 활동

영암군이 지난 8일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더십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숙박형 캠프에서 당일형으로 변경하여 60명의 참여기구 위원들 대상으로 3회로 나누어 전문강사와 함께 참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디자인씽킹 특강 및 청소년들이 공감 주제를 선정하고 정책 제안을 해보는 등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청소년참여기구는 코로나 극복 응원 및 세월호 추모 챌린지,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영상제



작, 코로나블루 극복 체험활동, 자화상 그리기 등 다양한 온라인 활동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참여 청소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정책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2020년 성인문해교실 운영

12월까지 225명 대상

무안군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과 장애인 225명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한다.

문해교실은 회당 2시간씩 매주 2회 운영되는 한글교실 13개소와 회당 1시간씩 매주 1회 운영되는 영어교실 1개소로 구성되며, 교육

은 각 읍면 종합사회복지관과 마을회관 등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순차적 운영 방침에 따라 지난 10일 무안읍, 일로읍, 문탄면 등 6개소에서 먼저 문해 수업을 개강하였고, 나머지 8개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에 개강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